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신성근 신부

우리는 신경에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를¹⁾ 믿는다고 고백한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인 이 네 속성들은 교회와 교회 사명의 본질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 속성들은 교회가 스스로 지니게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가 되도록 해 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이 특성들 하나하나를 실현하도록 촉구하신다.

교회가 이 특성들을 하느님께 받는다는 사실은 오로지 신앙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특성들은 인간 이성에 설득력을 지닌 명백한 표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과 보편적 일치와 확고한 안정성은 그 자체가 교회에 대한 위대하고 영원한 신뢰의 동기가 되며, 하느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²⁾

1.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그 기원으로 볼 때 하나이다. 이 신비의 최고 표본과 최고 원리는 삼위의 일치, 곧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일치에서 기원한다. 교회는 그 설립자로 보아 하나이다. 즉 강생하신 성자께서는 평화의 임금님으로서 당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고 한 백성, 한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일치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는 그 ‘영혼’으로 하나이다. 믿는 이들 안에 살아 계시는 성령께서는 온 교회를 가득 채우시고 다스리시어 교우들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시고 모든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합하시어, 교회 일치의 원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다.³⁾

이러한 원리를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우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 신앙은 본질에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이다. 또 교회가 하나임을 드러내는 외적인 요소는 단일한 경신례(敬信禮) 곧 같은 예배와 성사이다.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 설교 내용이 같고, 가르치는 교리가 같고, 종교·의식적인 경신례가 같다.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며,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하나 된 일치를 체험한다. 교우들은 모두 같은 성사들을 받는다.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 지역 간의 친교에서도 하나 됨이 드러난다. 교구장 주교의 통솔하에 있는 '지역교회'(교구)들도 일치의 상징이며, 일치의 중심인 교황

1)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2) 가톨릭 교회 교리서, 811-812항 참조.

3) 가톨릭 교회 교리서, 813항 참조.

과의 공동유대(共動紐帶)로 일치되어 있다. 이것은 생동하는 일치이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선물에서 흘러나오는 일치이다. 그러나 같은 신앙, 같은 경신례도 사랑(Caritas : 애덕)의 유대 없이는 하나 됨의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 같은 신앙과 경신례와 사랑의 유대는 교회의 단일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당신 교회에 주신 일치,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일치가 가톨릭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으며 세상 종말까지 그 일치가 날로 자라나기를 바래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끊임없이 일치의 선물을 주고 계시지만, 교회는 언제나 이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완성하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이 일치를 바라신다. “아버지,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⁴⁾

2.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의 신앙은 교회가 참으로 거룩하다고 고백한다. 이 거룩함은 교회의 창립자이신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스도에게서, 또 그분의 성령에게서 모든 거룩함이 흘러나온다. 교회가 고백하고 가르치는바 거룩한 교회는 바로 그분 때문이다.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가 성스러운 것은 그분 때문이다. 그분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고 남아있다. 교회의 예배도 거룩하다. 그리고 교회가 자기 구성원들과 집전하는 성사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생활로 이끈다.

그러므로 거룩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려 오셨으므로, 죄인들을 품고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쇄신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생활로 만인을 초대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충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합당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주신다. 그러기에 교회의 무수한 구성원들이 탁월한 성덕을 보여 왔고, 순교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 신자들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성(聖性)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교회에 계심을 믿는 것이요, 다음으로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성령의 은사로 모든 교우가 성화 되어 완성에 이를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은 ‘성도’(聖徒) 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

3. 교회는 보편되다.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보편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에는 '전체성' 또는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이 있다.⁵⁾ 가톨릭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이를 위한 교회이다. 그뿐 아

4)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0항 참조.

니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를 빠짐없이 가리켜왔다는 점에서도 교회는 보편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에게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본분이라고 여기고 있다.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뜻에서 보편적(가톨릭)이다. 먼저 교회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므로 보편 된다.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다.”라고 가르쳤다. 교회 안에는 머리와 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하게 존재한다.⁶⁾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전하고 충만한 방법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 방법들은 올바르게 완전한 신앙 고백, 온전한 성사 생활 그리고 사도적 계승을 통하여 서품된 직무 등이다. 본질에서 교회는 성령 강림 날부터 보편 된 것이었으며,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항상 보편 될 것이다.⁷⁾

교회가 보편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전 인류에게 파견하셨기 때문이다.⁸⁾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도록 불린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이 백성은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가, 처음에 인간 본성을 하나로 만드시고 흠어진 당신 자녀들을 마침내 하나로 모으고자 하신 하느님 뜻의 계획을 성취해야 한다. 하느님의 백성을 돋보이게 꾸며 주는 이 보편성은 바로 주님의 선물이다.⁹⁾

또한 개별 교회는 보편 된다.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교우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으로 모이는 지역 집회에 존재하며, 자기 목자들과 결합하여 있는 이 회중을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교우들이 모이고, 주님 만찬의 신비가 거행된다. 이 공동체들이 가끔 작고 가난하거나 흠어져 살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며, 그분의 힘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가 이루어진다.¹⁰⁾

이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이며, 사도적 계승으로 서품된 주교들과, 믿음과 성사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¹¹⁾

5)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0항 참조.

6) 에페 1,22-23 :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7)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0항.

8) 마태 28,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1항.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2항 참조.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3항 참조.

4. 교회는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

교회는 사도들 위에 세워졌으므로 사도적이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파견하신 증인들인 “사도들의 기초”(에페 2,20)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¹²⁾ 고귀한 유산, 사도들에게서 들은 귀한 가르침인 복음 말씀을¹³⁾ 보존하고 전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들의 사목직을 이어받아 그들을 계승한 사람들, 곧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회의 최고 목자와 하나 되어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주교단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지도를 받는다. 이 후계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초대 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똑같은 가르침이다.¹⁴⁾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라고 할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톨릭교회 안에 보존되어 온다는 것과, 그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이 성장하고 생활화되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바로 가톨릭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5. 교회 밖에서의 구원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사와 같은 것이다.¹⁶⁾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라고 하신 말씀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모든 세대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께 나아가도록 교회를 세우셨다. 진정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현존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만이 인간은 구원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다른 종교나 그 밖의 사람들이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교회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어디든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솔하게 타 교파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없으며 또 구원되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의 구원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작용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중에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자기희생적

12) 사도 2,42 :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13) 2티모 1,13-14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14) 가톨릭 교회 교리서, 857항 참조.

15) 교회 헌장, 8항 참조.

16) 교회 헌장, 1항 참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모를 수 있다. 혹은 안다고 해도 외면적이거나 추상적 혹은 상식적인 면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결코 구원과 관계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정리하면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니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와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참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알면서도, 자유 의지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나가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과 교회를 모르면서도, 선의로 양심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비 가톨릭 그리스도교인들이나 유대교인들 및 기타 선의의 구도자들도 이에 속한다.¹⁷⁾

교회는 답합니다

참 교회는 하나이요,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가톨릭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오는 교회이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지역을 포용하는 보편 된 교회이고, 무수한 성인들을 배출하고 성화하는 거룩한 교회이며,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일치로 바탕으로 하여, 로마 교황과 일치해 있는 같은 교회이다. 다른 교파들도 부분적으로 이 조건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혀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을 무조건 이단시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답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종말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다(묵시 19,6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도래한 이 나라는 종말에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안에 신비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때 그분께 속량 되어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에페 1,4 참조)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에페 4,3-5 참조)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서(묵시 21,10-11 참조)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다.”(21,14)(865항)

17) 교회 헌장, 14-16항 참조.